

23-1, 2023 년 1 월달 밴쿠버 김은중이유진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아버지 마음으로)

"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주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원자님들 새해에 주님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년이 지나 새해가 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방향성을 삼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다가 탕자의 비유가 들어 있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단체와 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섬겼지만 이곳 캐나다에서 부목사 10 년과 지난 1 년 개척교회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마음은 인내와 이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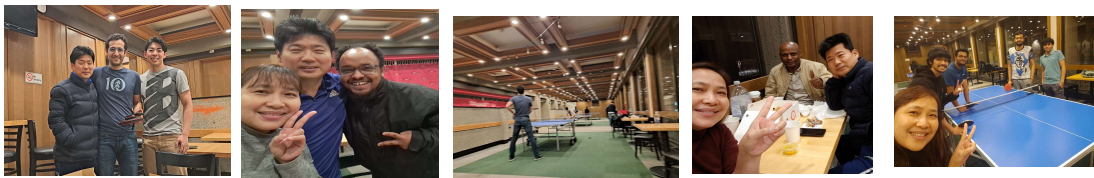
이곳 문화는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비전”이라는 개인주의와 “enjoy” 문화속에 살다보니 한국의 공동체 중심과 교회에서의 헌신과 제자라는 단어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 차이가 없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잣대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디고 황당하고 시간이 오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제 안에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한 영혼도 붙잡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포용, 말씀과 기도 이 단어를 계속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한 해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해의 함찬 발걸음을 주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안에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2. 1 월 사역을 돌아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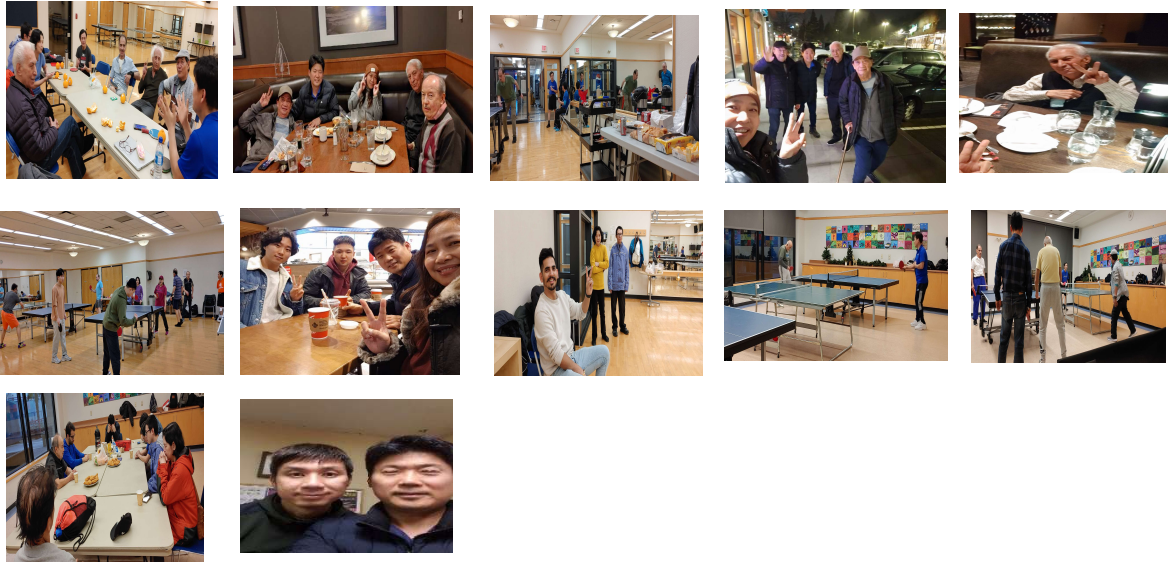
아래 사진은 1 월달 SFU 대학에서 양들을 만나 교제 한 사진입니다.





천천히 사역에 시동을 걸었던 달이고 지속적으로 탁구만남 속에서 영혼들을 찾고 교제했던 달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주안에 행복한 교회 예배와 친교 사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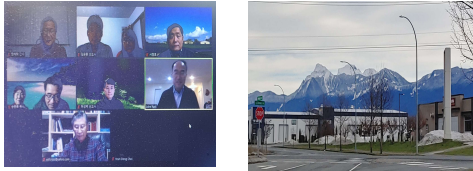
예배는 8-10 명 정도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boni family ,king, marian, 동수 형제가 꾸준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Hamit family, siba family 가 나올수 있도록 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1 월 마지막주 초청 및 찬양예배입니다.



갈릴리 교회 청년팀을 불러 매달 마지막주에는 초청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갈릴리 청년 6명 우리 교회 22명 모두 30명 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래 사진은 북미주 선교사 시무식 및 밴쿠버 사진들입니다.



매달 북미주(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예배하고 사역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시무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박상돈 목사님이 말씀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 겨울속에 있어서 흰눈들이 보입니다.

3. 2023년 7대 기도제목

2023년은 “아버지 마음으로 “라는 표어로 누가복음 15:20 절 을 요절 삼아 시작하였습니다.

- 1)매일 성령충만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새벽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빼지 않고 드릴수 있도록
- 2)캠퍼스와 주안에 행복한 교회에 매주 마다 새로운 지체들이 나오고 쉬지 않고 전도하도록
- 3)갈릴리 교회와 매달 4째주 찬양예배를 통해 다민족 사역을 잘 이루고 유학생 사역과 도시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 4)한국의 15개 교회 후원과 밴쿠버 5개 교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개척이후에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사역하도록
- 5)주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가정 이룰수 있도록 특별히 아내가 공부를 잘 마치고 형준이가 UBC 편입을 이룰수 있도록 한국의 요한이 직장생활 한나의 간호사생활과 대학원 과정을 잘 마무리 하도록
- 6)한국의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도록
- 7)가정의 복음화 이루어 주시도록 큰누나 작은형, 작은누나, 승희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고 당료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임 85세인데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4. 2월달 기도제목

- 1) 캠퍼스에 계속해서 새로운 청년들을 잘 만나고 개척 멤버로 새울수 있는 지체를 보내어 주소서
- 2) 캠퍼스에 그룹 성경공부가 다시 잘 이어져서 매주 마다 은혜로운 성경공부 시간이 되도록

- 3) 주안에 행복한 교회의 가족 (boni, sumit, hamit)들이 지속적으로 예배 참석하도록
- 4) 새로운 교회 식구들이 탁구교제속에 (Friday) 지속적으로 참석하도록
- 5) 밴쿠버와 한국에 후원할 교회를 계속하여 찾고 잘 연결될수 있도록
- 6) 교회개척과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특별히 매달 렌트비가 1300 불 정도 나가게 되어 재정적 적자로 인해 기도제목이 됩니다.
- 7) 저희 가정이 늘 성령충만하여 주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포용하고 꿈을 붙잡을 수 있도록